“템플스테이는 ‘마음’… 불교에 빠져보세요”



묘향 스님은 출가 삭발식에서 “포교에 일생을 다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15년째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를 알리고 있다.



참가자와 ‘108염주 꿰기’를 하고 있다.



해양경찰들과 함께한 ‘찾아가는 템플스테이’.

스토리텔링 기획

템플스테이 & 피플 1

묘향 스님

내소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출가 삭발식서 ‘포교’ 원력을 세워
15년 경력 ‘베테랑’ 지도법사 정평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에 매진
연령·직업군 등 맞춤형 체험 강조

내소사=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마지막도 친절.”

내소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묘향 스님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대하는 자세다. 저마다 갖가지 고민과 불안, 설렘과 기대를 안고 찾아왔을 사찰. 참가자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알기에 조금의 불편함도, 조금의 소외감도 주고 싶지 않은 스님의 철칙이다. 템플스테이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그저 묵은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에 스며들길 바랄 뿐이다.

묘향 스님은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스님들 가운데 ‘베테랑’으로 꼽힌다. 스님은 2008년 첫 소임을 맡은 후 꼬박 15년간 한길을 걸어왔다. 경력도 경력이지만 프로그램 개발, 지도 역량 강화 등 템플스테이 운영에 질을 높이기 위한 공부도 늘 손에서 놓지 않는다.

“템플스테이는 서비스업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숙박·요식·상담·체험 등 모든 게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이죠.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니즈(needs)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템플스테이가 좋은 경험으로 기억된다면 불교를 향한 긍정적인 인식도 자연스레 생겨나겠죠.”

묘향 스님이 템플스테이와 맺은 인연은 출가 시절 세운 포교 원력과 맞닿아 있다. 아픈 어머니의 간병을 도맡았던 스님은 번뇌를 여읜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 불교에 있음을 확신했다. 불교의 매력에 빠져 출가를 결심한 후 1997년 용인 화운사를 찾아갔다. 은사스님을 만나자 부처님에 의지해 살아가겠다는 다짐은 더욱 견고해졌다. 산문에 든 지 일주일만에 삭발식이 열렸다. 은사스님이 마지막 남은 머리카락 한 움큼을 자르는 찰나, “포교를 위해 일생을 다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봉녕사 강원과 중앙승가대에서 공부하며 식견을 넓혀가던 스님에게 어느 날 선배스님이 법흥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소임을 추천했다. 지금껏 배워온 불교를 실천할 수 있다는 감사함과 포교 일선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흔쾌히 승낙했다. 그렇게 스님은 영월 법흥사, 경북 장육사, 양양 낙산사, 인제 백담사, 부안 내소사 등을 거치며 차곡차곡 경험을 쌓았다.

2년여 전부터 내소사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은 연령, 직업군, 모임 성격 등을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불교를 알아가고 싶은 이들에겐 체험형을, 인간관계에 지친 이들에겐 휴식형을 권유한다.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이들에겐 걷기 명상을, 비종교인들에겐 한지를 활용한 전통문화체험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남녀노소 사랑받는 프로그램은 스님이 직접 1시간 30분 동안 사찰 곳곳을 소개하는 ‘사찰안내’다. 사찰안내는 오리엔테이션 이후 진행되는 첫 활동으로, 템플스테이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스님이 손수 매듭을 지어주는 ‘108염주 꿰기’도 참가자들에게 “환대받는 느낌” “선물 하나 받아 간다” 등의 후기를 받으며 호응이 높다.

“사찰이라고 하면 딱딱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그런 편견을 조금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각들을 소개할 땐 영화, 드라마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과 연관지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장전의 경우 영화 ‘신과 함께’에 비유해 소개하니 많은 분이 재미있게 들어주셨죠. 그렇게 불교를 쉽고, 편하게 알아간다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삶에 스미는 포교도 이뤄질 것이라 믿어요. 사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드리려면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도 모자랍니다.”



묘향 스님은 참가자들이 털어놓는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건넨다.

무엇보다 스님과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차명상’은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참가자들에게 쉼과 힐링을 선사한다. 수련회 형식으로 단체가 많았던 전과 달리 개인 또는 소수 그룹 참가자가 많아지면서 그들이 털어놓는 고민도 다양하다. 20대는 졸업과 취업이, 30대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40대는 가정의 불화가, 50대는 퇴직이 고민의 큰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최근 참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20~30대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걱정이 많은 게 고민입니다’ ‘회사 일에 찌들어 있다가 다래끼도 나고 몸도 마음도 지쳤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막막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어느 방향을 가더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등 불안한 현실과 미래, 인생의 방향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이럴 때면 스님은 참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건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음으로 후회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음으로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지금 여기’ 밖에 없습니다. 1초 1분이 모여 현재가 만들어지는 만큼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 갑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은 결국 스스로의 욕심과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나와 같길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세요.”

“본인 이름을 10번 이상 불러보세요. 큰 힘이 되고 자존감도 생길 것입니다.”

스님은 중앙승가대 재학 당시 복지를 전공한 덕에 상담과 교류에 능숙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젊은 참가자도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후 ‘잘 살겠다’는 마음을 얻었다. 게다가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알게 된 10여 명은 불교와 인연을 맺고 10여 년이 넘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물론 사람을 상대하기에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다. 그럴 때마다 카멜레온이 된 듯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더욱 애쓴다. 이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의 ‘소명의식’에서 비롯됐다. 웃음이 주변으로 전염되듯, 참가자를 평온으로 이끌기 위한 솔선수범인 셈이다.

묘향 스님은 요즘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포교 영역 넓히고 있다. 경찰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것이다. 올해 9월에는 부안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 20명을 대상으로 합장주 만들기, 명상 체험, 스님 법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템플스테이는 ‘마음’이라고 강조한 묘향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지도법사와 실무자들은 제 역할을 해내겠다는 단단한 마음가짐, 즉 프로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참가자들도 모든 근심과 번뇌를 내려놓고 올곧이 쉼에 다가가야 합니다. (템플스테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다가 불교의 편안함에 푹 빠져보길 바랍니다.”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단 1회 특별행사)

12월 2일 출발~9일 도착

인도양의 진주라는 아름다운 스리랑카는 수령 2,500여년 된 보리수와 부처님 치아사리, 그리고 바위산 위에 있는 궁전 시기리야, 담불라 황금석굴사원, 폴론나루와의 불상과 유적, 유럽풍의 휴양도시 갈레 등 성지순례 및 휴양으로도 훌륭한 곳입니다.

동참금 | 219만원

일 정 | ▶인천–콜롬보–담불라–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12월 6일 출발~10일 도착 (3박5일간)

보로부두르 대탑은 1,200여년전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불탑입니다.
1460개에 달하는 벽면에는 부처님의 전생담과 탄생등 생애에 관한 장면들이
그리고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이 조성되어 있고
최상층에는 화엄법계를구현하는 부처님의 세계를 조성한 세계 최고의 불탑입니다.

동참금 | 169만원

일 정 | ▶1일 :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인천–자카르타
▶2일 : 자카르타–족자카르타–프람바난사원,세우사원,플라오산 불교사원등 순례
▶3일 : 보로부두르 대탑, 멘듯사원등 순례
▶4일 : 머라피 화산 지프로 관광 후 족자카르타 출발, 자카르타 도착(경유)
▶5일 : 인천 공항 도착

달라이라마 인도 보드가야 법회 10일

달라이라마 법문 및 성지순례(12월26일~1월4일 도착)

인도 보드가야에서 달라이라마 법문이 23년 12월29일에서 31일까지 3일간 봉행됩니다.법문과 더불어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보드가야 대탑에서 기도와 영축산등 성지순례를 하는일정입니다.

동참금 | 28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사르나트)–보드가야법회(보드가야대탑–계족산–전정각산–가야산)–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칠엽굴–제석굴)–파트나–델리–인천



특별한 일정

1. 달라이라마 보드가야 법회 3일간
2. 부처님 성불하신 보드가야 대탑 기도
3.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금란가사를 지니고 들어가서 미륵부처님을 기다린다는 계족산 등정
4. 부처님이 오르셨던 전정각산과 가야산 등정
5. 법화경 설법지 영축산과 나란다대학
6. 제석천이 찾아와서 설법을 요청한 제석굴 순례

예약·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